‘문·이과 통합’ 수능 한 달 앞으로

건강관리 유의하며 오답 노트 정리·보완 집중해야
50만9000명 지원…자가격리·확진자도 응시 가능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11월18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올해 수능은 문·이과 통합 취지에 맞춰 처음으로 국어와 수학 영역이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로 시행된다.

수능 지원자는 50만 9821명으로 지난해(49만 3434명)보다 1만 6387명(3.3%) 늘었다.

지난해 처음으로 응시자 50만 명 선이 무너졌으나 올해 다시 50만 명 위로 올라섰다. 재학생 수는 36만 710명으로 4.0% 증가했고, 졸업생도 13만 4834명으로 1.3% 늘었다. 검정고시 등 기타 지원자도 4.3% 증가한 1만 4277명으로 집계됐다.

국어 영역에서는 선택과목 중 ‘화법과 작문’을 선택한 수험생이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학생보다 많았고, 수학 영역에서는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의 순으로 선택자가 많았다.

올해 수능 시험장에는 코로나19여파에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한 시험실에 수험생 24명이 배치된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수험생이 응시할 수 있고 자가격리자와 확진자도 시험을 볼 수 있다.

일반수험생은 사전에 고지된 일반시험장, 격리수험생은 별도로 마련된 고사장, 확진 수험생은 사전에 지정된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에서 응시한다.

수험생은 수능 당일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신분 확인 시간에는 마스크를 잠시 내려 감독관에게 얼굴을 보여줘야 한다.

시험 시간에도 책상에 칸막이를 뒀던 지난해 수능과 달리 점심시간에만 종이로 된 칸막이를 설치한다.

스마트 기기, 디지털카메라,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통신 기능이나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있는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는 반입할 수 없다.

입시 전문가들은 수능을 한 달 남긴 시점에서 건강 관리에 유의하면서 오답 노트 정리 등 마무리 공부를 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새로운 내용을 공부하기보다는 어려운 부분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기출 문제 등을 통해 실전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말한다.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시험이 임박해 너무 어려운 문제집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며 “이미 공부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보완하고 반복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수험생 부모의 정성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한달 여 앞둔17일 광주시 서구 무각사에서 수험생 학부모들이 자녀의 고득점을 기원하며 기도를 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이상익 함평군수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 당해

고발 업체 “지난해 당선 이후 1000만원 상당 옷 구입비 대납”
이 군수측 “올 초 양복점에 업체 결제비용 돌려주라 하고 결제”

이상익 함평군수가 지역 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지난해 4월 당선 직후 “잘 봐달라”며 이 군수와 비서실장의 맞춤 정장 구입 비용을 내줬다는 업체 관계자의 고발장이 최근 접수되면서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함평 농공단지 내 17억원 대 공사업체 선정과정을 놓고 불거진 잡음에서 비롯됐다는 의혹이 흘러나오고 있다.

17일 전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남청은 이상익 함평군수에 대한 고발 사건을 지난 16일 함평경찰로부터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중이다. 이 군수는 지난 7일 뇌물수수 혐의로 함평지역 납품업체 관계자로부터 고발당했다.

고발장에는 이 군수가 지난해 4월 보궐선거 당선 직후 광주시 동구의 한 양복점에서 구입한 1000만원 상당의 맞춤 양복 5벌 비용을 지역 납품업체 관계자가 대신 지급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 군수가 지난 5월과 7월 각각 2벌, 3벌의 양복을 구입해갔고 업체 관계자가 7월에 한꺼번에 1000만원 상당의 비용을 결제했다는 것이다.

함평경찰은 지난 9일 고발장을 낸 업체 관계자에 대한 진술을 받은 상태로 전남청은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 지능범죄수사대로 이관해 수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군수측은 “당선 이후 맞춤 양복을 5벌 구입한 것은 맞다”면서 “하지만 당선 뒤 워낙 바빠 올해 1월 18일에 가족을 보내 가격을 조정한 뒤 모든 비용을 결제했다”고 반박했다. 이 군수측은 “지난 1월 결제 당시에 해당 업체 관계자의 대금 결제 사실을 파악하고 양복점측에 ‘우리와 관계 없다’며 업체에 되돌려주라고 했다”면서 “고소 사실을 들은 바 없고, 확인을 거쳐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맞고소를 준비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화순전남대병원 ‘암 치료 병원’ 세계 142위

뉴스위크 선정

화순전남대병원이 뉴스위크가 선정한 ‘암 치료 잘하는 세계 최고 병원’으로 꼽혔다.

17일 화순전남대병원에 따르면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는 최근 ‘2022 임상 분야별 세계 최고 병원(world’s best hospitals)’을 선정, 발표했다.

화순전남대병원은 암 치료(Oncology) 분야에서 전 세계 250개 병원 중 142위에 이름을 올렸다.

‘세계 최고 병원’으로 선정된 국내 13개 병원 중 비수도권으로는 유일하며, 국립대병원에서는 서울대병원과 두 곳뿐이다.

화순전남대병원은 수도권 대형병원보다 암환자 5년 생존율이 높고 병상당 암 수술건수 전국 1위, 6대암 치료 최고등급 등 ‘암 치료를 잘하는 병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신명근 병원장은 “화순전남대병원이 2년 연속 뉴스위크의 ‘월드 베스트 암 병원’으로 선정되는 등 글로벌 의료역량을 인정받았다”며 “차세대 정밀의료, 면역세포치료, AI·빅데이터 활용한 혁신의료서비스 등 암 정복을 위한 연구와 교육, 치료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인터넷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여고생 여성용품 구입비 지원

광주교육청, 학생당 6만9000원

광주시교육청이 여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교육복지 향상을 위해 생리용품 구입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지역 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여학생 2만 여 명이다. 지원하는 생리용품 구입비는 2021년도 하반기 6개월분이며, 학생 당 총 6만 9000원이 책정됐다.

지역화폐(광주은행 상생카드) 3만원 권 2장을 각 가정에 배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현물로 구입해 여학생들이 학교에서 생리용품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학교에 비치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여학생 생리용품 지원 사업은 광주시교육청 여학생 생리용품지원 조례안에 근거한 광주시교육청과 광주시의 협력 사업이다. /김대성 기자 bigkim@

울릉도·독도 개척 전라도 사람들

호남대 20일 ‘약무호남 시무독도 특별전’…온라인 전시도

조선 후기부터 동해의 끝 섬인 경상북도 울릉도·독도를 배로 오가며 삶의 터전으로 삼고 지켜왔던 전라도인들의 울릉도·독도 개척사를 추적한 특별한 전시가 열린다.

호남대학교는 ‘울릉도·독도를 개척한 전라도 사람들’을 주제로 한 ‘약무호남 시무독도(若無湖南 是無獨島) 2021특별전’을 오는 20일 오전 11시 광주 송정역 2층 전시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특별전은 온라인 전시 사이트(https://www.honam.ac.kr/Dokdo)를 통해 VR로 만나 볼 수 있다.

일본 정부가 터무니없는 독도 영유권 주장을 노골화하고 있는 가운데 독도의 날(10월 25일)을 맞아 열리는 이번 전시는 호남대 대학혁신사업단과 인문사회과학연구소·랄랄라스쿨·독도수호대가 주관하고 광주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고흥군, 광주관광재단, 전남관광재단, 광주전남기자협회, 코레일 광주송정역 등이 후원한다.

이번 전시에는 구한말 울릉도로 건너가 배를 건조했던 배 목수가 사용한 것으로 전해지는 ‘붕어(거두)톱’과 1885년 거문도를 점령한 영국군이 촬영한 울릉도 개척민들로 추정되는 거문도 어부와 어선 등의 옛 사진이 최초 공개된다. 또 ‘호남대 약무호남 시무독도 2019 울릉도 독도탐방단’이 독도 환경정화 활동 중 동도의 대한민국 영토표석 인근 해변에서 발견한 1950년대 독도 경비대의 사진 등 울릉도·독도 개척 전라도인들의 행적 등을 알 수 있는 자료들이 공개된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